

명사추천 불서100선

금강반야바라밀경

산업화·물질만능 시대의 필독서

불교와 인연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옛부터 이겠지만, 나 스스로 불교에 접근하려 노력한 것은 불과 10여년 전부터이다. 아주 짧은 불연이라 나는 아직도 초발심자에 불과하고, 불경도 불서도 그리 많이 읽은 바 없어 불자로서는 부끄럽이 늘 앞선다.

반야심경에 심취되어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던 열마진이 지나고 '공'에 일단 머물고나니 공이여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에 도달해 한 동안 회염경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후 인연 닿는대로 이 경전 저 경전을 대했지만 주변만 우회하게 될 뿐 그 심층을 꿰고 뜯어갈 계기가 없어 안타까웠다.

지금 나는 '삼을 취하지 말고 진여 그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즉, 不取於相 如如不動에 정해하고 있다. 아니, 기꺼이 그곳에서 서성이고 싶다.

연재부터인가 나는 매일 한 번씩 금강경을 독송한다. 그것은 예고없이, 나를 담친 난관에서 탈출하고자 택한 방편이었다. 소용돌이치는 고뇌, 해결책이 막혔던 암흑에서 헤어나기 위한이었다. 처음엔 그저 시간만 보냈으나, 신기하게도 독송이 끝나는 30분 후에는 갖 표백한 광목같은 산뜻함에 쌓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것을 일러 경전의 미력이라 할까. 나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좋다.



황명숙 <한양대학교·영어교육과>

'재미와 가르침'이 성공열쇠

어린이불서 삽화 디자인 비중 커...작가양성도 과제

어린이불서 출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만도 <어린이 불교성전> <보림달도독> <연꽃 만화> 등 20여종이 나왔다. 80년대 중반 이후 출간된 어린이 불서는 1백여종. 이는 2천여종에 이르는 전체 출판량과 비교할 때 5%에 머무르는 수치이지만, 최근 들어 활발한 출판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좋은책 만들기를 당부하는 요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불서 출간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더욱 좋은책 만들기를 당부하는 요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범어 교리 등 다른 분야의 불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어린이불서는 기획단계부터 집필, 출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와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동화집 <해탈꽃>을 펴내 불교출판문화상을 수상했던 고종환씨는 <해탈꽃>을 쓰는 동안 아이들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어린이불서를 펴내는 사람은 항상 어린이의 감각과 그들의 손짓 발짓의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말씀을 기획하고 집필, 출판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불지사의 이정범 부장은 "당장 재미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고 교육적이며 종교적인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이 가운데 부처님말씀을 전해주는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며 "상업성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출판의도가 우선되는 출판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가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화작가 신현득씨(불교아동문화회)는 불교동화작가의 부족이 어린이불서의 양과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좋은 작가와 평론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작가지원금 제도의 실시, 원고료의 현실화, 출판의 활성화, 그리고 신문 등 인쇄매체에서 창작욕구를 자극하는 지면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각효과를 좌우하는 삽화 만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15년전 월간<불광>에 최초로 불교만화 연재를 시작한 이정문씨는 "활자보다 시각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만화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국적이고 불교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만화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출판 기획자 이호백씨는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언어를 가공하지 않고 작가가 '문전하게' 풍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지 차원에서 고정관념을 넘

파를 받을 때도 있다"며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불교가 무엇인지 알게해주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행중인 어머니 자비행 보살은 "꼭 불교를 드러내지 않아도 불교의 가르침이 배어있는 불서가 나와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내용의 불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런 어린이불서 나왔으면

어린이들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부처님이 신이나, 살아계시는 분이냐는 등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던진다. 사천왕사에 다니는 이태훈군의 어머니 이선자씨는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불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고 김달진 <...아내> 우리출판사서 재출간

고 김달진시인의 <일곱가지 아내>가 새롭게 꾸며져 곧 우리출판사에서 나온다.

이 책은 지난 64년 범용사에서 펴낸 뒤 절판된 것으로, 고인의 사위인 최동호교수(고려대.국문학)가 오늘의 안이음관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일부 정리했다.

<일곱가지 아내>는 경전 속의 설화 42편을 추려 식가모니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고인은 <일곱가지 아내>의 서문에서 "고 속에서 낙을, 한 속에서 실을, 무상 속에서 상을, 무아 속에서 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랑승만 시인 출판기념회 「반야의 산바람 물소리」

랑승만 시인의 시집 <반야의 산바람 물소리> 출판기념회 및

가난한 마음 어루만지는 손길 느껴

부처님 생시의 모습을 실감나게 하는 '법회 인유본'은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1252인종만 사람이 되어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따뜻한 게 피가 도는 부처님을 대하고 있는 환희에 젖는다. 고개를 쳐들고 부처님 모습에 합출해 봤을, 그때 그 자리에 앉은 나를 상상하게도 된다.

"어떻게 응당 주어야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함복합니까" (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란 수보리의 물음에 나는 깊이 동조한다. 하루에도, 아니 한순간에도 골짜기 요신부리는 내 마음, 그걸 잡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파란 만장한 고해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좋다, 좋다" 하시는 부처님의 목소리도 귀에 쫓겨하고 그 인자하신 모습이 눈앞에 있어 어린다. 그리고 목메인 독송으로 이어지는 구구절절, 어린이들을 타이르듯 자상하게 다독거리시는 그 모습, 그 말씀, 체부비음(慈悲音) 같은

泣)같은 어찌 수보리 뿐이겠는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님이...머무는 바 없이 보시할 것이며...못 삼은 다 허망함이나 모든 상이 비참임을 알아야 여래를 볼수니라...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경 가운데 단지 사구계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일러준다면, 이러한 복덕이 더욱 크니라."

누군가를 칠보로 보시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것을 못가졌기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을 그렇듯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신 분. 또 그것을 능가할 보시의 길을 일러주시는 자애로운 말씀. 금강경엔 그 모습, 그 말씀이 살아서 승한다. 따라서 금강경은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 물질이 만능으로 잔주되어 가진 자의 횡포로 상대적 약이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는 현대사회,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들에게 필히 권하고 싶은 경전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분류
1	퀴즈대장경	불교출판문화부	불지사	입문
2	무(無)	김정민	글수레	법어
3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스타	교리
4	범구역	거해	고려인민대학	경전
5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불광	어린이
6	천수경	무비 풀이	불일출판사	경전
7	불교상식백과	홍사신 외	불교시대사	교리
8	부처님이 좋아요	이정문	불광	어린이
9	시각도 끝도 없는 길	일타	현민	법어
10	대지관 좌선법	전태지자	문주사	선

구입문의: (02)737-0695

칼럼·문학작품등 정리...추모의 글도

선원빈 유교집 「솔바람...」 출간

남은 이들은 그를 "맑은 등 안에 큰 눈, 정처에 편승않은 울골은 신문장이, 불교언론에 불씨를 지피 발가는(耕田) 소 같이 23년간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불교기자"로 기억한다.

지난해 10월 53세를 일기로 타계한 전 법보신문 편집국장 선원빈 거사의 유교집 「솔바람 소리를 들던 사람, 선원빈」이 불지사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선원빈 거사가 불교계 신문잡지 등에 집필했던 불교시사칼럼 및 기획물과 동국대 재학시절 정열적으로 썼던 시 소설 공보 등 문학작품 그리고 그와 함께 생활했던 스님들과 선후배 친구들의 추모글이 함께 실려 있다.

"정휴스님이 신을 신은 채 방

으로 들어가 다짜고짜로 이불을 들추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회고 밧고족족한 일물종이 하나가 꿩굴고 있었다. 이 사내가 그 유명한 선원빈 거사였다. 나와 첫 대면 장면이었던 것이다." 오현스님(나산사 조실)은 이렇듯 전진보살로서의 그의 일면을 들여다 보여준다.

생전의 고인과 각별했던 정휴스님(불교신문 사장)은 "당신은 교계신문의 산 역사요, 그 역사는 당신의 법신이 되어 영원히 번치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당신은 교계신문을 위한 고행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자"라며 추모의 글을 바친다.

한편 불교정화사를 가지는 시각으로 정리한 고인의 유교 「불교정화의 시말」과 '불가의



신종숙도,는 불교와 관련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밖에 그를 추모하는 지인들의 글 속에서 40년 가까이 불교언론이 걸어온 발자취와 불교언론의 위상 그리고 불교언론인들의 사명감과 애환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출판단신

모델로 원고송수신 불광 출판부 첫 설치

월간 「불광」과 불광출판부(대표 광덕)는 최근 업무효율화를 위해 편집부에 컴퓨터 모델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원고의 수신과 송신이 가능케 됨으로써 원고수집 등의 인력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사진식자도 모델로 송신할 수 있어 제작공정 단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불광출판부에서 모델을 설치, 운용하는 곳은 불광출판부가 최초로, 불광출판부는 이후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독자관리 및 불서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모델 통신로는 「불광」에서 전액 부담한다.

百聞而不如一見  
지금까지 이런 한자교재는 없었다

이래현 선생  
한자 특수 암기 비법  
실용신안특허 제49356호

한자 특수 암기 비법 비디오  
한국사회의 漢字복권운동

한자암기비법 - 그것이 알고 싶다

●이래현 선생님의 20여년의 연구결과와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짧은시간에 전혀 무리없이 익혀가는 가장 이상적이며 완벽한 속성 교재이다.

"한자암기비법 특허획득"

영재한문비디오를 보기전에는 한자암기비법에 대해 말하지 마라!

구입문의처. TEL. (02) 362 - 8641~4

漢文

영재비디오스쿨 VIDEO SCHOOL

정장적인 한자교육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기업·구청·성당·개인들이 한자교육에 나서고 있으며 지도층 인사들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왜 지금 우리에게 한문의 중요성이 다시 논의되는가?

국회사회의 국경쟁력은 知力에서 나온다. 우리 민족문화의 길잡이였던 漢字를 안 쓰는 14억 한자(유교)문화권에서 고립된다.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상호보완」이란, 우리 문화생활의 슬기...

한자를 안 쓰는 것은 한 날개를 도려내는 것... 한쪽 날개만으로는 문화도 국가도 비상할 수 없다

더 이상 한글 세대를 만들지 마라!

대리점 개설문의 ☎ (02) 393-2328

MEDIA 영재 뉴미디어 NEW MEDIA